

보성군, 새해 해맞이 을사(乙巳)년 풍요 기원 한다

100m 뱀 형상화 초대형 달집태우기
1월1일 울포해수욕장일원 오전6시30분
'보성에서 새로운 시작' 주제 드론쇼
교통·주차 관리 안전요원 90명 배치

보성군이 2025년 1월1일 100m '뱀'을 형상화한 초대형 달집태우기로 을사(乙巳)년 풍요를 기원한다.

23일 보성군에 따르면 1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해맞이명소 울포솔밭해수욕장에서 푸른 뱀을 뜻하는 을사(乙巳)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2025년 해맞이 행사는 보성라이온스클럽이 주최·주관하며, 힘찬 에너지로 새해를 여는 타악 공연을 시작으로 보성군립국악단 공연, '보성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700여대의 드론이 하늘을 수놓는 드론라이트 쇼 등을 진행한다.

부대행사로는 방문객들을 위한 떡국 무료 나눔 행사, 차 시음 부스, 새해 희망 쓰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이번 해맞이 행사에는 보성

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길이 100m의 '뱀' 형상의 달집태우기 행사를 진행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주차 관리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장 인근에 90여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볼거리 가득한 행사인 '2025년 보성 새해 해맞이 행사'에 함께해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에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각 읍면에서도 개별적으로 소규모 해맞이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소원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성=양중수 기자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생 모집 광양시, 1월6일부터

광양시는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연계 교육이다. 시는 농업인의 영농계획 수립을 돕고 작물 재배 기술 및 병해충 관리 등의 교육을 받은 농업인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이며 교육 장소는 시험포장 내 광양시 농업인교육관 2층강당이다. 감, 배, 플럼코트·복숭아(핵과류), 가공 창업, 양봉 등 10개 품목의 전문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교육 전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업인에 대한 의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광양 농업인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이 진행되는 2일 전까지 전화, 온라인(네이버폼) 또는 가까운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061-797-36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희 기술보급과장은 "농업인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 대응 방법을 알게 되고, 품질 농산물 생산 및 재배 기술을 습득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여수시, 2월7일까지 시범 발급

여수시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9개 지자체 시범 발급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17세 이상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주민등록증' 또는 'IC주민등록증'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R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성한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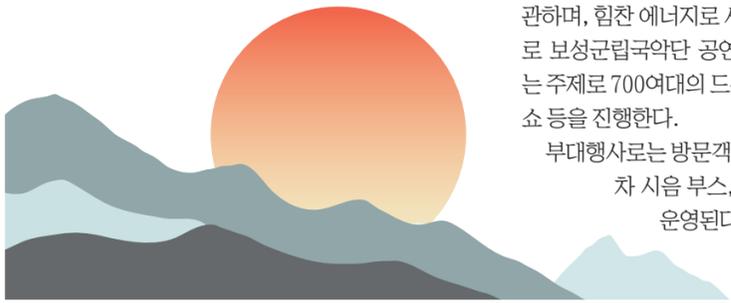
'IC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IC주민등록증을 접촉하면 발급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 1만원(IC칩 비용 5000원·재발급 비용 5000원)이 소요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신규자가 IC주민등록증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신원확인이 가능해 더욱 편리한 일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조직 운영 효율화' 우수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인력 충원 등

여수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3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조직개편, 조직관리방식, 조직분석·진단, 기능인력 재배치, 조직혁신·효율화 등을 종합 평가해 25개 우수기관을 선정,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배분했다.

여수시는 자체 조직진단 방식을 개발, 불필요한 기구를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수요 기구를 신설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합리적인 기구 개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남도 내 시군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각종 사회재난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인력을 충원함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에 발맞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력 재배치로 조직 운영의 내실을 다졌다"며 "앞으로도 상황 및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통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31일까지 연말 특별 추가 이벤트 순천 고향사랑기부제

순천시는 직장인 연말정산을 대비해 오는 31일까지 '순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별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고향사랑e음누리집 또는 은행 어플(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 농협을 방문하여 순천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시 인기 답례품 1종(3만원 상당)을 랜덤으로 추가 증정하며 당첨자 발표는 이벤트 종료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 불가)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고(개인별 최대 500만원 가능)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기부금의 30%)을 받는 제도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인기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지난 11월에 이어 추가로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20일 여수시 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김장 김치를 만들어 저소득층 200세대에 전달 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장김치 나눔

여수시 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후림)가 김장철을 맞아 지난 20일 국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플러스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협

의체 연합모금 사업 'The Dream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포함한 MG구봉새마을금고·노티나무자원봉사단, 국동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 회원 70여명이 김치를 담가 저소득층 200세대에 온정을 전했다.

오후림 위원장은 "추운 날씨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많은 단체 회원들이 앞장서 참여해주셨다"며 "이웃들이 외롭지 않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복례 국동장은 "봉사에 솔선수범해 주신 자생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국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시, 새로운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

저연차 새내기 적응 휴가 등

순천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퇴직 방지를 위해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새로운 후생복지 시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부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적응 휴가' 3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공직생활 안정과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3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에 이어 두 번째 조례 개정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강화하는 것.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또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20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출산장려휴가(30일)는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순천시의 보다 강화되고 앞선 시책 추진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자녀 입대 및 수능 휴가, 기념일 휴가, 퇴직 준비 휴가,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도 발굴 시행중에 있다.

특히 여성민원·격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문화탐방, 직원 소통 프로그램 등 각종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새내기 적응



휴가 신설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방지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듯이 직원들의 복지 증진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